

연예뉴스 스테이션

황수정, 무비 출연 핑크로 계약금 반환 피소



연기자 황수정(사진)이 신인 가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핑크내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수 서윤의 소속사 그라운드뮤직은 “황수정이 뮤직비디오 주연을 맡아 촬영 전 출연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받았으나 예고 없이 촬영을 핑크냈다”며 20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그라운드뮤직 측은 “황수정이 약속한 출연료의 2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촬영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10여일째 연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라운드 뮤직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출연료 50%와 촬영 경비를 변상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상지희’ 스테파니, 美 발레계 스타로 금의환향



여성그룹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의 멤버로 활동했던 스테파니(사진)가 미국 발레계 스타로 한국을 찾았다. 스테파니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29일부터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과 포항, 울진, 영양을 돌며 열리는 ‘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스타 초청 공연’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다. 스테파니는 ‘천상지희’ 멤버로 활동하다가 지난해부터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젤’ 2막의 그랑 파드되(2인무)와 자신이 직접 안무한 컨템포러리 작품 ‘프래질(Fragile)’을 공연한다.

MC몽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 오늘 심판대 오른다

법제처는 28일 가수 MC몽(32)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법령해석심의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전을 심의한다. 법령해석심의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했으며 모든 안전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박완규, ‘남자의 자격’의 ‘청춘합창단’ 합류

그룹 부활 출신의 가수 박완규가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 올가을 선보이는 ‘청춘합창단’에 출연한다. ‘청춘합창단’은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 음악감독을 맡았다. 박완규는 23일 첫 녹화를 했다. ‘청춘합창단’은 ‘남자의 자격’이 지난해 선보인 ‘남자, 그리고 하모니’에 이은 시즌2 성격의 프로젝트로 1960년 이전 출생자(52세 이상)를 대상으로 합창단원을 공개모집했다. 이들은 9월 KBS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한다.

日 개그맨 고모토, ‘슈스케3’에 일본 대표로 선발

일본의 개그 콤비 ‘지초카초’의 멤버 고모토 준이치가 한국에서 열리는 ‘슈퍼스타 K 시즌3’(이하 ‘슈스케3’)에 일본 대표로 참가한다. 26일 도쿄 시부야 클럽 케메루에서 열린 일본 예선 최종 심사에서 40개팀 53명이 겨룬 끝에 고모토를 포함한 5명이 일본 대표로 선발됐다. 고모토는 김범수의 ‘보고싶다’를 불러 합격했다. 일본 대표 5명은 7월 초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다.

지역 8월 실행 신청한, 항소이유서 제출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신청환이 2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신청환은 재판에서 지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신청환은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 판결에 대해 24일 항소이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측은 신청환의 2심 재판을 제 2형사부에 배당했다.

김여진, ‘손석희의 시선집중’ 고정패널로 발탁

김여진이 MBC 표준FM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고정 출연자로 발탁됐다. 김여진은 7월18일부터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월요일 고정 코너인 ‘보수·진보토론’의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여진은 올해 초 홍익대 청소년동자 지원활동에 참여했고 반값 등록금과 한진중공업 사태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보이며 ‘소셜테이너’로 활동 중이다.

사과방송 ‘신기생던’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명성말이 장면에 대해 사과방송을 한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던’가 26일 방송에서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했다.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신기생던’은 시청률 25.0%를 기록했다.

TV랭킹

6월20일~6월26일, 자료:AGB닐슨

순위	프로그램	방송사	시청률(%)
1	사랑을 믿어요(주말연속극)	KBS2	26.1
2	신기생던(특별기획)	SBS	23.7
3	반짝반짝 빛나는(주말연속극)	MBC	22.3
4	해피선데이	KBS2	21.7
5	최고의사랑(수목미니시리즈)	MBC	19.5
6	무한도전	MBC	17.4
7	우리집어자들(일일연속극)	KBS1	17.2
8	세바퀴	MBC	16.5
9	KBS9시뉴스	KBS1	16.4
10	전국노래자랑	KBS1	15.1

영화 ‘고지전’ 이·제·훈 꿈을 말하다



편집 | 양해진 기자, yjh@donga.com 트위터@e_dy1u1

스물두살 연기에 목말라

다니던 대학 관두고 대학로 무대로...

현실적인 고통도 참으며 정통연기 공부

4년간 10여편 영화 출연 ‘신인 아닌 신인’

2년 후 한창 연기꽃 필 나이에 입대

주위에서 더 초조해해요, 하하...

평생 연기할건데 2년 공백쯤이야

꿈은 열심히 노력하며 찾는 사람들만 꿀 수 있는 특권이다.

고교시절 연기자들 꿈꿨지만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던 이제훈(27)은 대학에 가서도 그 꿈을 버릴 수 없어 결국 연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기회는 천천히 찾아왔다. 이제훈이 주연한 첫 번째 영화 ‘파수꾼’이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주연 영화 ‘고지전’은 올 여름 한국영화 기대작으로 꼽히는 블록버스터다.

7월21일 ‘고지전’ 개봉을 앞두고 이제훈을 만났다.

“인생에서 한 번 만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았다”고 7개월간의 촬영 과정을 돌이킨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몰렸던 적이 많았다”고 했다.

넉달간 3번의 오디션 고지쟁탈 전쟁이었죠

●다니던 대학 관두고 대학로 극단으로

이제훈은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서울 대학로 극단을 찾았다. 그의 나이 22세 때 일이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적성은 무엇일까’ 늘 고민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저의 인생 스토리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더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대학로를 찾아갔어요.”

그가 1년간 몸담았던 극단은 러시아 유학과 출신들이 모여 만든 ‘동’이었다. 정통 연극 연기를 배우던 그 시절을 이제훈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감내해야 했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기를 하고 싶으니까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해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이 학교 영상원 학생들이 만든 작품에 몇 차례 출연한 게 인연이 됐다. “한예종을 드나들며 느낀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대로써 정식으로 연기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훈의 스크린 경력은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출연 편수는 10여 편에 이른다. 대부분 저예산 독립영화다. 짧지 않은 시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연기 경력을 쌓아왔다는 것이 출연작 수와 장르에서 증명하고 있다.

이제훈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개봉한 ‘파수꾼’.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을 수상한 이 영화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고 독립영화로는 드물게 2만 관객을 넘어섰다. 이 상봉세에 힘입어 그가 처음 도전하는 상업 영화가 ‘고지전’이다.

●캐스팅 오디션 세 번... ‘군대에 다녀온 느낌’

‘고지전’은 한국전쟁 후반부, 휴전을 앞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휴전선 인근 고지에서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군인들의 소모적인 전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드라마를 다뤘다. 교수, 신하균과 함께 이제훈은 영화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긴장을 풀어내는 주역이다.

“제가 맡은 신영일 대위는 어린 나이지만 무대를 이끄는 사람이예요. 신영일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배우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던 탓에 100여 대작인 ‘고지전’에 참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출자 장훈 감독 앞에서 세 차례나 오디션을 치렀다. 4개월 동안 계속된 오디션 과정을 두고 이제훈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군대에 다녀온 기분이에요.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는 사각지대에서 평지부터 고지까지 저 혼자 뛰어오르는 장면을 찍을 땐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죠. 다음날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몸이 굳었어요. 하하.”

실제로 이제훈은 2년 뒤 군 입대를 계획 중이다. 한창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입대해야 하는 그를 두고 주위에서는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만만하다.

“주위에서 초조해하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남은 평생 계속 연기할 건데 군 복무 동안의 공백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이제훈은 ‘고지전’ 개봉 이후 더 바쁜 연기활동을 앞두고 있다. 출연을 논의 중인 드라마와 영화가 여러 편. 그 가운데 한 편을 골라 공백 없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가 하고 싶어요. 송강호, 전도연 선배님과 연기하고도 싶고요. 어릴 때부터 두 선배의 연기를 보고 자랐는데 함께 연기할 수 있는 날도 올 거라 믿어요.”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 ‘파수꾼’으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제훈이 ‘고지전’으로 전쟁 블록버스터에 도전했다. 대학 공부를 포기하고 연극 무대를 찾아 험난한 길을 걸었듯 이제훈은 짧은 영화 경력을 새롭게 쌓아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in

스타, 그때의 오늘

1990년 연기자 정재순 첫 개인 미술전 마감

연예계 많은 스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재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연기가 노래 등 ‘전공’ 뿐 아니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과시한다.

톱스타 심은하가 동양화가로 데뷔해 뛰어난 그림 실력을 자랑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미술에 남다른 재능으로 찬사를 받은 연예인도 적지 않다.

1990년 오늘, 탤런트 정재순(사진)이 서울 신사동 인데코갤러리 연 첫 개인전을 마감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모으던 드라마 MBC 주말극 ‘배반의 장미’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은 정재순은 이미 5~6년 전부터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88올림픽 스포츠 수채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



한 것을 비롯해 전국 공모전에서 다섯 차례나 상을 받으며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다.

정재순에 앞서 화가로 데뷔한 스타가 또 있었으니, 바로 가수 조영남이다. 그는 1980년대부터 화투를 소재로 기발한 상상력을 뽐냈던 작품으로 인정받아왔다.

정재순이 개인전을 열던 시기 조영남은 미국 LA의 시몬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가수뿐 아니라 화가, 문필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연예인 화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1970년대 인기를 누리던 가수 정미조다. 이화여대 미대 출신인 정미조는 아예 프랑스 파리로 미술 유학을 떠나 파리 7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뒤 개인전을 열었고, 이후 가요계가 아닌 미술계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생명보험협회 상의율 제2010~206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비보험은 30%까지 정산되며, 정산시 요양도가 전산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